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27일)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성보박물관 숙원 사업 학예인력 충원 본격화

불교중앙博 · 문화재청, '다량소장처 인력배치 사업' 시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성보박물관과 수장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학예인력이다. 일반 사립박물관과 달리 영세한 사찰 성보박물관은 전문 학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찰 성보박물관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문 학예 인력 강화가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최근 운영기관을 확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사업' 은 문화재청을 통해 국고 2억 6000만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학예사 8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공모를 통해서는 4개 권역, 8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서울 · 경기 · 강원 권역에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충청 권역에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이 이름을 올렸다.

국고 2억 6천만원 지원 받아
4개권역 8개 기관 인력 배치
사찰박물관 · 수장고 등 관리
문화재청 지원 정책 새 전기
스님 학예사들 양성도 '첫 발'

전라 권역에는 화엄사 성보박물관과 송광사 성보박물관이, 경상 권역에는 쌍계사 성보박물관 · 해인사 성보박물관 · 동화사 성보박물관 ·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운영기관들은 향후 사업 지원을 통해 전문 학예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이들은 권역 내 본 · 말사 성보박물관 · 수장고와 문중, 고택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3~4곳의 보존 관리, 전시 업무, 교육, 유물 전산 등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같은 권역별 학예 인력 배치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인력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등록된 성보박물관 · 사찰 보장각 47곳 중 30곳에 전문 학예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았다. 일반 관리 인력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들은 비전문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돼 유물 목록조차 없어서 도난과 망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권역별로 전문 학예 인력이 배치되면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문화재 다량소장처 수장 환경과 보존 · 관리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항온항습시설같이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이를 관리 · 운영할 전문 학예 인력"이라면서 "사찰 재정 상 전문 학예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사업으로 성보박물관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학예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보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대한 전문 학예 인력 배치는 문화재청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로도 평가된다. 그간 문화재청은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다량소장처 지원사업' 을 통해 다량소장처의 시설 운영 전기료 · 시설 점검 · 유물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해왔지만, 어디까지나 시설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전문 학예 인력 배치가 처음 시행되면서 성보박물관 등 다량소장처 문화재 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투입된 것이다.

향후 불교중앙박물관은 권역별 학예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교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인력 배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20명 정도의 학예 인력을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찰과 문중 소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중앙승가대와 함께 스님 전문 학예 인력 양성에도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 2019년 학술 연구와 교육을 위한 MOU를 채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중앙승가대가 추천한 문화재 전공자 효찬, 도공 스님이 3월부터 불교중앙박물관 인턴(교육실습생)으로 활동하게 됐다. 학예사 자격을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같은 경력인증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필수여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은 스님 학예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범어사 태극기 호국불교의 산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이 3.1절 102주년을 맞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태극기를 나누어 들었다. 3월 1일 국가보훈처 지정시설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열린 '제102회 3.1독립 만세운동 기념식' 에서 참여대중은 그날의 함성과 울분을 되새기며 뜨겁게 '대한독립' 을 외쳤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신자 배가운동 '수미산 원정대' 출범

상월결사 자승 스님 주축
2월 27일 봉은사서 발대식

상월결사 대중포교 연결선상
불교신자 배가운동 본격전개
교육과 신행장려로 불심 증장
5월 교육시작, 8월 수계 예정



상월결사는 2월 2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신자 배가운동인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미산원정대로 참여한 불자대중들이 힘찬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

2000만 불교 교세를 회복하기 위한 불교신자 배가운동 '수미산 원정대' 가 출범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2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신자 배가운동인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봉행하고, 불교중흥 실천에 나섰다.

수미산 원정대의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와 세상의 중심인 거대한 산이다. 수미산 원정대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019년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서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는 게송으로 남긴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삶 현장이 수미산이며 불국정토임을 깨닫고 믿어 불교중흥을 이루자'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미산 원정대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의 중심 불자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 등 스님들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前 국회정각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정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종립학교 동국대에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 총장, 황순일 불교대학장, 김용현 사회과학대학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학장, 차승재 교수, 신영섭 교수 등과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구본일 BTN불교TV 사장, 오계윤 아나운서 등 사부대중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원정대 발족에 앞서 불교 교세 쇠락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중흥을 위한 불교신자 배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예전에는 불자가 2000만 불자였는데, 세월이 지나자 1500만 불자라고 했다. 총무원장을 할 때는 1000만 불자였고, 임기가 끝날 때 쯤엔 700여 만 불자라고 조사결과 나왔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300만 불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자 감소의 원인을 보면 인구감소, 종교편향, 스님들의 무관심 등이 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불교가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이 경험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스님은 "1984년 수원포교당 주지로 있을 당시에 총무원 국장 소임도 맡아 전철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1주일에 두세번은 '불신지옥' 이라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들을 만나곤 했다"며 "그때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몰상식' 한 것으로만 취급했다. 몇 년 전 교황님이 오셨을 때 명동성당에 간 적이 있다. 이 때도 하나님 믿으라고 수차례 들었다. 이때는 놀랐다. 불교가 왜 신도가 줄어드는지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는 '오면 오고, 가면 가는' 수준으로 신도들을 대한다. 여기에 불자분들이 모였지만 과연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 훌륭한 불교를 믿어보라고 권하고, 몇 명이나 불교와 인연을 맺어 줬는지 돌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수미산 원정대는 불교가 침몰하는 배라면 그 속도를 늦춰보자는 취지다. 불자 한명 한명이 새로운 이들이 불교와 인연 맺는 데 최상의 노력을 해보자는 의지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미산 원정대는 크게 교육과 수행으로 불자배가운동을 진행한다. 5월 개강 후 주 2회로 총 12회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도반알기, 불자들의 자세와 예절 배우기 등 불교상식과 교리 교육을 비롯해 8월 2박 3일 수행 이후 수계식이 진행된다.

이날 첫 발대식에서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의 '상월결사와 불교의 지혜', 신영섭 동국대 교수의 '감동있는 불교로의 인연' 강연이 진행됐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은 "선정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불교"를 강조했으며, 신영섭 교수는 "감동을 위한 수행테인먼트, 신명나는 템플테인먼트" 등 방안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사단법인 동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